

역사기행

소수서원(紹修書院)답사기

□ 향촌 권 오창



州判官)으로 부임하여 후세무민하던 무당들을 척결하여 명성을 얻었다. 36세 때에는 국자사업(國子司業)에 올랐고 46세 때에는 좌부승지(左副承旨)가 되었다. 그 후에 많은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올바른 치정을 베풀고 삼벌초의 진중에서 탈출하여 충성의 의리로 왕으로부터 상을 받았으며 왜구를 정벌코자 원나라와 연합하고 정동행성(征東行省)을 직접 관장한 바 있고 원나라를 내왕하면서 불교가 성하던 사대에 주자(朱子)의 도(道)를 존중하여 이단을 배척하여야 함을 알게 하여 주었고, 진실로 선생의 학문은 유학의 올바른 기초를 세우고 성(誠)과 경(敬)을 주관으로 하여 수많은 현인과 인재를 배출하게 하여 유학진흥에 주력하였고 후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선생은 1306년 9월 12일에 별세하였고 문성(文成)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1318년(충숙왕 5년) 2월에는 선생의 영정을 그려 문묘에 봉안하였다.

이에 풍기군수 신재(慎齋) 주세봉(周世逢) 선생이 1543년(조선 중종 38년)에 회헌(會憲) 선생의 탄생지에 백운동서원을 세우고 선생의 유적을 기리고 감화를 열어 최초의 사학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 후 퇴계 이황선생이 1550년(명종 5년)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후 경상감사에 건의하여 소수서원으로 사액되었다. 명종임금은 이 서원에 노비와 전갈과 서책을 하사하였다. 이 서원에 1544년(중종 39년)에 안축(安軸), 안보(安輔), 1633년(인조 11년)에는 주세봉을 추배하였다. 그 후 1871년(고종 8년) 대원군(大院君)의 서원철폐를 할 때에도 소수서원은 제외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경내에는 문성공묘가 있고 명륜당 직방제, 일신제, 지락제, 학구제는 강학의 장소이며 장서각은 서책을 보관 출판하는 곳이었다고 전사청은 제기를 보관하였던 곳이다. 경내를 둘러싼 기와 돌담은 건물 배치에 적정을 기하였다. 경내와 서원 주위는 수백년 된 소나무가 울창하고 은행나무 고목이 있고 대나무 숲도 있다. 서원 정문 입구 우측에는 경림정이 있으며 죽계천이 흐르는 옆에 연화봉이 솟아 있다. 정자 정면 외부 현판은 퇴계선생 친필이고 정자 내부의 시판은 주세봉선생의 시판이다. 그 외에는 퇴계선생 등 여러 명현의 시부판(詩賦板)이 걸려 있다. 특히 송암(松嶽) 권호문(權好文), 평암(平菴) 권정침(權正植), 계서(溪西) 권규도(權奎道) 선생 등은 경림정 시(詩)에 차운한 시구가 문집에 기록되어 있다.

소수서원의 정문은 사주로서 둥근기둥에 문짝에는 태극문양이 있다. 지락제 동북측에 축문 대문이 있고 중문이 세 개 있으며 서원의 뒤쪽에는 후문이 있다. 고작시는 전사청 뒤편에 있으며 이는 서원 관리인이 거처하던 곳이다. 제월루는 지락제와 경림정 사이 담장 너머에 있던 건물로 추정되는데 식당과 연회장소로 쓰여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다고 한다.

사료를 소장한 소수 박물관은 서원소장 유물을 전시하기 위하여 1982년에 신축되었고 충효 교육관은 고작사 담장 밖에 있는 건물로서 유물전시 및 교유를 위하여 1992년에 완공되었다. 그 밖에 관광안내봉사실 건물에 있는데 시청 담당 공무원이 상근하고 문화재 해설 자원봉사자가 근무시간 내에 나와 있다. 또한 매표소 안 내표지판, 매표, 음용시설과 넓은 주차장이 정비되어 있다.

기행문

先進 西部유럽 탐訪

□ 권 계 동 (본원상임부총재)

(지난호에 이어서)

3. 민주주의가 싹튼 스위스

23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공화국으로 수도 베른에 연방정부가 있다. 스위스 정치의 특색이라면 법률안에 대한 국민들의 최종 심사를 거치는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라 전체가 꽃으로 둘러싸인 스위스는 아름다운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중세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나라라고 할 수 있었다. 도시 곳곳을 장식한 발코니의 꽃들과 알프스에서 볼 수 있는 고산지대의 꽃, 만년설이 뒤덮인 유럽의 지붕, 알프스와 필라투스, 티틀리스, 리기와 같은 많은 산,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계공업 등 스위스는 그 이름만으로도 매력적이었던 곳이었다.

스위스는 1291년 3개 주로서 연방공화국을 형성하였으며 현재 26개 주로 구성되어 있고 4개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했다. 주산업은 정밀기계를 포함한 무기생 산관매업, 목축업, 금융업, 관광산업이 주이고, 인공 국가에 수력발전전에 의한 전기도 수출한다고 하였다.

주요 하천으로는 라인강의 발원지이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고 한다.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지대로 북서부에는 쥐라산맥, 그 옆으로는 제네바, 루체른, 취리히를 잇는 평평한 대지가 펼쳐진다. 알프스 산맥에는 몬테로사, 마티호른 등의 험준한 고봉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라인강, 론강, 다뉴브강의 발원이 되고 있다.

기후는 6-9월초까지는 여름으로 30℃를 넘는 더위가 계속되며 아침과 저녁으로는 영하로 내려가는 등 일교차가 매우 크다. 겨울엔 11-4월말까지는 매서운 추위가 엄습하지만 여름과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자네기 좋은 기후이다. 북부 평원에는 기후가 온화하고 상쾌한 편이며 알프스 이남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따뜻하다. 고도 100m 이상 올라갈 때마다 기온은 0.5℃씩 내려가며 산의 정상 지역은 여름에도 춥다고 한다.



영향을 받아 따뜻하다. 고도 100m 이상 올라갈 때마다 기온은 0.5℃씩 내려가며 산의 정상 지역은 여름에도 춥다고 한다.

스위스의 정치적 중심은 취리히, 바젤, 베른, 제네바이고, 이곳에서 스위스의 문화생활이 발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궁중의 사치스런 예술이 아니라 스위스인의 미덕, 신중, 검소, 등을 높이 평가하는 예술이라고 하였다.

1) 세계 평화의 도시 제네바 제네바는 세계의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로 국제 적십자사 본부와 국제연합 유럽 본부 등 주요 국제기관이 위치해 있다. 따라서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각종 국제회의가 자주 개최되며 프랑스에 인접해 있는 작고 아담한 도시라고 하였다.

프랑스어의 대표도시이며 문화적 도시로 정관이 수려한 레만호를 비롯하여 사적들이 풍부한 세계적인 관광지이다. 주요 산업은 시계제조, 보석세공, 정밀기계, 의료기계 공업 등이다. 또한 레만호의 서쪽, 론강이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곳에 위치해 있어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있다.

2) 숲 속의 오비부공원 오비부공원은 레만호 양쪽에 위치한 숲 속의 아름다운 정원이었다. 입구에 오래 묵은 히말라야 산나무가 우뚝 서 있었고 각종 고목들이 군데군데 서 있었다. 이 공원은 원래 개인 소유였는데 지금은 공중공원으로 되었다고 하였다. 당시 주인이 외국을 갈 때마다 마음에 드는 나무를 가져와서 심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무가 자라서 지금은 고목이 되었다고 하였다. 호주에서 본 레드우드, 일본에서 본 스기나무, 열대림과 전지가 어울려진 훌륭한 휴식공간이었다. 바로 앞에 레만호에 있는 수많은 요트, 저 멀리 흰 눈을 머

리 에 이고 있는 산들, 시아가 탁 트인 제네바 시가지 등이 한데 어울려 한 폭의 그림과 같이 아름답게 보였다. 공원의 이곳저곳의 아름다운 곳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용변을 본 후 잠시 쉬었다가 화려하다는 영국정원으로 갔다.

3) 화려한 영국정원 영국정원은 오비부공원과 잠미공원의 가까이 있는 화려한 정원이다. 프랑스의 기하학적으로 배치된 정원과는 대조적으로 자연스러운 산책로가 마련된 영국식의 정원이라는 뜻에서 영국정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였다.

공원에는 사다목이 경영하는 온실에서 가꾼 꽃으로 꾸며진 문자반의 직경이 4m 인 꽃시계, 1815년 제네바가 스위스 연방에 가입한 것을 기념하는 국가기념물, 유람선, 선착장, 선상 레스토랑 등이 있다고 하였으나 직접 돌아보지는 못하였다.

4) 서유럽 최대의 레만호수 레만호수는 스위스 남서쪽 국경에 있는 호수로 일명 제네바 호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였다. 길이 72km에 달하는 서유럽 최대의 호수로서 론강이 유입되어 제네바의 론강으로 흘러가는 빙하호라고 하였다.

프랑스와의 국경선이 호수를 동서로 가로지르며 남쪽으로는 알프스와 북쪽으로는 쥐아 산맥의 웅대한 산들이 바라보이는 곳이었다. 호반을 따라 유럽의 휴양지가 점점 흩어지는데 제네바와 이를 각처를 잇는 수상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었다. 레만 호수에서 제네바 시내를 바라보면 유럽 유엔본부, 국제노동기구, 적십자 위원회, 세계재산년보본부 등이 한 눈에 보였다.

5) 만년설의 샤모니 몽블랑 스위스에서 프랑스 국경을 넘으며 비탈진 길을 따라 몽블랑을 향하였다. 샤모니는 스위스와 이탈리아 국경에 인접한 몽블랑 기슭의 해발 1,038m에 위치한 프랑스 남동부의 소도시라고 하였다. 샤모니는 1924년 동계 올림픽을 시초로 각종 국제경기 개최되었으며 스케이트를 비롯한 동계 스포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

알프스 등산의 출발점이기도 하며 국립 스키학교와 등산학교도 있다고 하였다. 인구는 약 9천명이고 몽블랑 등의 전망을



성원에 감사합니다	
□ 회장단 회비	
▲ 권인택(부총재)	50만원(1차분)
▲ 권길상(부총재)	100만원
▲ 권혁춘(부총재)	100만원
	소계 250만원
□ 중무위원 회비	
▲ 권오익(인천)	20만원
□ 찬조금	
▲ 권성환(인천총친회장)	10만원
▲ 권경란(일본히로시마)	1만원
합계 280만원 1만엔	

즐길 수 있는 에퀴 디 미디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있고 1922년 샤모니 사람들은 몽블랑에 대한 애착으로 지명을 '샤모니 몽블랑'으로 했다고 하였다.

샤모니에 도착하여 테트라식당에서 프랑스 전통요리인 '뽕뽕'이라고 하는 쥘 감자, 튀긴 감자, 쇠고기, 상추, 치즈 등으로 점심밥을 먹었다. 점심밥을 먹고 조금 기다렸다가 몽블랑 정상에 향하여 케이블카를 탔다. 공중을 이동하면서 1,030m에서 2,317m까지 올라갔다. 오른쪽으로는 반짝이는 얼음을 뒤집어 쓴 몽블랑의 정상과 조금 낮게 보이는 보송(Bossons) 빙하를 감상 할 수 있었다.

왼쪽 밑으로는 에퀴이 베르뜨, 레드링, 레 에퀴이 드 샤모니도 볼 수 있었다. 뽕뽕 드 에퀴이에서 와서 케이블카를 바꾸어 탔다. 약 10분이 지나서 3,777m의 고도지점에 도착하였다. 오른쪽으로는 팔 디 미디, 맞은편으로 보이는 에퀴이 디 미디, 북쪽으로는 페르르 빙하의 얼음 덩어리를 볼 수 있었다. 왼쪽 계곡에서는 스키를 타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사람과 그 아래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키를 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관광객들은 케이블카에서 내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앞에 보이는 라디오 중계소(3,842m)까지 가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선(禪) 수행과 참마음

□ 권 도 갑 (前 서울도봉교당 교무)

마음공부에 가장 바탕이 되는 공부 가 바로 선(禪)이다. 수많은 구도자들이 지금도 선 수행에 힘입어 직공하고 있다.

선은 자신의 머리에 입력된 다른 사람의 생각(사상, 정보, 지식)들을 닦아 내 이들의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선을 하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인식이 가능해진다. 이는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어둡다.

물질 문명의 영향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가고 있다. 인간에 대한 지고한 가치를 외면하고 잘못 인식하도록 배웠기 때문이다.

지금 그가 누구이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결정된다.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는 자기 실존을 확인하는 대단히 중요한 물음이다.

나의 인생은 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면 탄탄대로의 삶은 열리지 않는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여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가 없다. 내가 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人生은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도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며 복락이 쌓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

이처럼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은 마음공부에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욕망의 안개가 걷히고 맑은 눈을 갖게 된다. 지혜를 얻게 된다. 마음을 지구력을 얻는다.

선 수행을 하면 자신의 참마음을 찾게 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사물을 볼 수 있다. 자신의 존재와 人生에 대한 놀라운 가치를 발견한다.

자기 인식이 깊어질수록 어려운 문제들이 쉽게 열리고 주변 여건이 좋아진다. 인생을 아름답게 창조할 수 있다.

선 수행을 하면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언제나 맑은 마음을 갖는다. 남의 생각으로 아무렇게나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

마음의 자유 속에 인생을 노래하고 웃고 즐긴다. 나와 세상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선과 마음 공부는 우리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다.

바로잡음

본지(2011년 9월 1일 제435호) 6면에 ①本院 名譽總裁이신 又岡 權壽赫 先生の 古稀 兼 出版을 爲한 記念詩는 1983년 12월 2일에 權洪燮 現 本院 顧問이 지은 詩로 년, 월, 일이 누락된 것을 바로 잡습니다.